『금강경』 번역의 제 문제

- 백용성 대종사 번역본 『금강경』의 구성 및 내용의 특징

김호귀 *

목 차

1. 백용성 대종사의 『금강경』 번역
2. 『윤관』 및 번역본의 구성과 특징
   1) 『윤관』
   2) 『詳譯科解金剛經』
   3) 『신역대장경』
   4)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3. 백용성 대종사 번역의 내용적인 특징

요 약

백용성 대종사는 『금강경』에 대하여 1922년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을 비롯하여 1926년 『詳譯科解金剛經』 및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그리고 1936년 『신역대장경』 등 총 4회에 걸쳐 번역하였다. 또한 1923년에는 『금강경』의 전체적인 대의에 대한 용성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全部大義綸貫』을 저술하였다.

『신역대장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은 鮮漢文 혼용체이면서, 冶父의 주석을 중심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단 연구교수

으로 하면서, 거기에 함허의 『說誼』 및 용성 자신의 주해를 가하였다. 『상역과해금강경』은 경문의 분과에 대한 용성의 견해가 가장 잘 드러난 번역본으로서 54분과로 세분하고, 용성 자신이 41회에 걸쳐서 경문의 단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가하였다. 『신역대장경』은 소명태자의 32분과에 의거하여 총 113단락으로 나누고, 112군데 걸쳐서 해설을 붙였다. 『윤관』은 경문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한 것이었다. 곧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27가지 의심과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10가지 의심 등 모두 37이다.

1. 백용성 대종사의 『금강경』 번역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에 용성당 진종대종사(이하 용성으로 약칭함)가 『금강경』에 대하여 출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全部大義綸貫』(이하 『윤관』으로 약칭함) 및 4종의 번역이 있다. 곧 제5권에 수록된 차례는 『윤관』, 『詳譯科解金剛經』,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본, 『신역대장경』,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이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번역한 각각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금강경』에 대한 이와 같은 용성의 열의는 용성 자신이 서술한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잘 드러나 있다. 곧 2937년(서기 1910년) 용성의 나이 47세가 되는 때 '옛날에 우리 불교를 배척한 자는 정자와 주자를 능가할 자가 없었고, 현재에 더욱 심하게 배척하는 자는 예수교이다. 우리가 먼저 배척할 것은 없지만 한번 쯤 변론할 필요는 있다.'는 호은장로의 권유를 받아서 칠불선원 조실에서 5월 10일 시작하여 7월 10일에 탈고한 『귀원정종』이 있었다. 이후로 3·1독립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서대문감옥에서 불경의 조선말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921년 3월에 출감하여 鮮漢文으로 『심조만유론』을 저술한 이후에 이어서 鮮漢文으로 『천

노금강경』을 번역하고 주석을 내었으며, 또 『금강경』을 상세하게 번역하고 분과하여 조선글로 주해를 하였다.

이것이 『금강경』과 관련된 조선글 번역의 필요성 및 그 결과였다. 용성이 번역한 『금강경』과 관련된 출판물은 『윤관』 및 4종의 번역본이 있다. 이것을 출간된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1922년 1월 28일 <鮮·漢文幷> ; ② 『윤관』 1923년 ; ③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본, 1926년 4월 29일 초판(1935년 8월 5일 재판, 1937 제3판 10월 20일) ; ④ 『詳譯科解金剛經』 1926년 초판 ; ⑤ 『신역대장경』, 1936년 9월 30일 <純鮮文>이다.

그러나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에 수록된 순서는 ① 『윤관』 1923년 3월 8일, ② 『詳譯科解金剛經』 1926 초판 4월 29일(1935 재판, 1937 제3판), ③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및 『윤관』 합본, 1923년 3월 8일, ④ 『신역대장경』, 1936년 9월 30일, <純鮮文>, ⑤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1922년 <鮮·漢文幷>이다. 본 고찰에서는 편의상 『용성대종사전집』에 수록된 순서에 따라서 각각 그 구성과 번역의 특징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윤관』 및 번역본의 구성과 특징

1) 『윤관』

『윤관』[1]은 『금강경』의 대의에 대한 전체적인 분과 및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금강경』에 대한 용성의 견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이 총 9단락으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다.

(1)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면서 먼저 본분의 도리를 보여주시다

1) 1923년 출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5-12.

(2) 천년 이후에 운문문언이 부처님의 본뜻을 드러내다
(3)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을 시설하다
(4) 보통의 중생은 의심이 너무 많다
(5) 경을 설할 때마다 먼저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다
(6) 의심을 없애고 믿음을 주다
(7) 금강경 전체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하다
(8) 부처님의 교리는 금강경에서 그치지 않는다
(9) 오늘날의 사조를 논하다

이 가운데 용성은 (6) 의심을 없애주고 믿음을 주는 대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금강경은 현재 법회에 참여한 대중의 의심을 타파하고 믿음으로써 깨달음에 들어갈 것을 지향한다. …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가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낱낱이 의심하는 즉시 타파해주어 의심이 영원히 소멸되고 반야에 안주하도록 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금강경이 귀착하는 곳이다.[2)]

이 의심과 그 타파에 대하여 이하 (7)『금강경』전체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하는 대목에서는『금강경』전체의 대의를 의심과 그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깨침에 들어가도록 해준다고 말한다.

	의심과 해결	아공·법공	경문의 상·하	總·別
1	안주·항복 : 무집착	아공의 의심에 대한 해결	上半 : 麤의 四相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3)]	단락에 따
2	중생제도 : 중생은 본래공			
3	깨침 추구 : 깨침에 대한 무집착			
4	보시 : 삼륜공적			
5	불국토 장엄 : 심청정·국토청정			

2)『용성대종사전집』제5권, p.7.

<table>
<tr><td>6</td><td>보신 : 법신</td><td rowspan="3"></td><td rowspan="6"></td><td rowspan="17">른

개
별
적

의
심</td></tr>
<tr><td>7</td><td>법신의 단멸 : 일체가 법신</td></tr>
<tr><td>8</td><td>화신 : 三身一體</td></tr>
<tr><td>9</td><td>재물·신명보시 : 색신</td><td rowspan="4">법공의
의심에
대한 해결</td></tr>
<tr><td>10</td><td>득법 : 무실·무허</td></tr>
<tr><td>11</td><td>무집착의 반야 : 아상·인상의 초월</td></tr>
<tr><td>12</td><td>아상·인상 : 문자반야</td></tr>
<tr><td>13</td><td>반야 : 무소득</td><td colspan="2" rowspan="15">下半 :
細의 四見(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에 대하여
아집과 법집에 대한 의심을 해결4)</td></tr>
<tr><td>14</td><td>성불의 眞因 : 법신은 인과초월</td></tr>
<tr><td>15</td><td>득법의 주체 :득법의 주체 초월</td></tr>
<tr><td>16</td><td>오안 : 중생심을 아는 것이 오안</td></tr>
<tr><td>17</td><td>보시의 복덕 : 무루복덕</td></tr>
<tr><td>18</td><td>32색신상 : 형상의 초월</td></tr>
<tr><td>19</td><td>설법의 주체 : 설법 자체가 없음</td></tr>
<tr><td>20</td><td>미래중생 : 본래 중생이 없음</td></tr>
<tr><td>21</td><td>법신의 선법 : 무집착의 평등</td></tr>
<tr><td>22</td><td>무아의 선법 : 반야의 통달</td></tr>
<tr><td>23</td><td>生佛平等 : 분별심의 초월</td></tr>
<tr><td>24</td><td>법신·보신의 진상 : 32상 초월</td></tr>
<tr><td>25</td><td>법신·보신·응화신 : 무단멸법</td></tr>
<tr><td>26</td><td>여래의 진아 : 미진·세계의 비유</td></tr>
<tr><td>27</td><td>사상·사견 : 사상·사견의 초월</td></tr>
<tr><td>28</td><td>根·境·識 : 무집착[無住]</td><td colspan="3" rowspan="10">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 의심</td></tr>
<tr><td>29</td><td>아뇩다라삼먁삼보리 : 무소득</td></tr>
<tr><td>30</td><td>불국토의 장엄 : 불국토가 공함</td></tr>
<tr><td>31</td><td>복덕 과보 : 구족색신상</td></tr>
<tr><td>32</td><td>삼신 : 응신·보신은 비진·비분별</td></tr>
<tr><td>33</td><td>법신 : 법신은 분별상이 아님</td></tr>
<tr><td>34</td><td>법신의 實我 : 일체법은 무아</td></tr>
<tr><td>35</td><td>삼신의 형상 : 삼신은 非一·非異</td></tr>
<tr><td>36</td><td>법신의 이해 : 삼신은 一體</td></tr>
<tr><td>37</td><td>법신의 적멸 : 여섯 가지의 비유</td></tr>
</table>

3) 32분과의 『금강경』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 앞의 제1 법회인유분부터 제16 능정업장분까지를 상반의 경문으로 간주하고, 제17 구경무아분부터 제32 응화비진분까지를

이와 같은 의심의 갈래에 대하여 용성은 수보리가 의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37가지를 설정한다. 37가지 의심 및 그 타파 가운데서 먼저 27가지(편의상 붙인 일련번호 1.-27.)는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의심에 대하여 낱낱이 그 의심을 해결해준다는 내용이고, 10가지는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의심 및 그 타파에 해당한다.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내용은 다시 경문의 구성에 따라서 1.-12.의 상반 부분은 거칠게[麤]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의 사상을 극복한 아공(1.-8.)에 대한 의심을 타파한 것이고, 이후는 법공(9.-12.)에 대한 의심을 타파한 것이다. 다음으로 13.-27.의 하반 부분은 미세하게[細]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의 사견을 극복한 것으로 아집과 법집에 대한 의심을 타파한 것이다. 따라서 상반의 경문은 四相을 타파해주는 까닭에 麤이고, 하반의 경문은 四見을 타파해주는 까닭에 細이다.

여기에서 용성이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의심과 그 타파에 대하여 27가지의 형식으로 설정한 것은 천친 『금강반야론』의 27斷疑 분과에 따른 해석이었지만,[5] 27가지의 개별적인 개념 이외에도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의심과 그 타파에 대하여 10가지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견해가 돋보인다.[6] 용성이 총체적인 의심 및 그

하반의 경문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4)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의 四相과 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의 四見은 각각 人의 四相(我空)과 법의 四見(法空)을 가리킨다. 때문에 전자를 소략하다[麤]고 말하고 후자를 자세하다[細]고 말한다.

5) 용성이 경문의 해석에 천친의 『금강반야경론』을 참고했다는 증거는 1922년 출간된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에 드러나 있다.

6) 일찍이 천친은 무착의 77게송에 대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경문을 배열하고 거기에 주석을 가하면서 수보리와 세존의 문답을 27斷疑의 구성으로 설정하였다. 김호귀, 13.「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 Ⅰ」,(『불교원전연구』 제3집. 2002. 6. 불교문화연구원)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4종어 考」,(『불교학보』 제38집 2001년 12월 불교문화연구원)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4종심 考」,(『한국불교학』 제30집. 2001. 12. 한국불교학회)

타파로 설정한 10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오온의 몸과 마음 및 육진경계의 형상에 집착하고 나아가서 그 行相에 집착하는 보시로써 복덕을 추구하는 경우는 부처님께서 무집착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②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행상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우는 무소득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③ 보시에 집착하여 불국토의 장엄을 추구하는 경우는 장엄할 불국토가 없다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④ 복덕에 집착하여 복덕의 과보에 대한 행상을 추구하는 경우는 32가지를 구족한 색신상을 통하여 그것을 타파한다. ⑤ 여래에게 삼신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경우는 응화신은 진신이 아니고 보신은 분별상을 벗어나 있다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⑥ 법신에도 형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경우는 법신은 분별상이 아니라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⑦ 법신에도 實我가 있다고 집착하는 경우는 일체법이 무아라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⑧ 삼신에도 정해진 형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경우는 삼신은 모두 동일하지도 않고 각각 다르지도 않다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⑨ 법신은 언설의 설법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것에 집착하는 경우는 삼신은 일체라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타파한다. ⑩ 법신은 적멸인데 어떻게 설법으로 드러내겠는가 하고 집착하는 경우는 여섯 가지 비유의 관찰을 빌려서 그것을 타파한다.[7]

한편 함허의 『윤관』에서 3段·10門의 분과로 설정한 경우에 법문을 듣는 대상의 근기에 따른 분과였다는 점[8]과 비교해보면 용성의 『윤관』에서는 경문 내용의 전개에 따른 분과였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용성에 의하여 간행된 『윤관』의 경우는 1923년의 동일본이면서 두 가지의 경우로 출간되었는데, 『용성대종사전집』의 맨 앞에 수록된 제일본과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에 합본형태로 수록된 제이본과 비교하

---

7)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10-11.

8) 김호귀, 「함허의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의 분과 고찰」, (『한국선학』 제12호 2005. 12)

여 그 차이점은 단순한 활자의 형태 차이, 그리고 제일본의 경우 佛字로 표기했던 것을 제이본의 경우 覺字로 바꾸었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2)『詳譯科解金剛經』

이『詳譯科解金剛經』[9]은 두 가지 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제일본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본이고, 제이본은 한글전용본이다. 제일본은 佛의 경우는 覺으로 고치고, 菩薩의 경우는 正士로 바꾸었다. 그러나 제이본의 경우는 원래대로 佛과 菩薩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10]

이와 같은『금강경』은 漢譯된 6종의 번역본 가운데 현장본『금강경』을 기준으로 보면『대반야경』의 제577권에 해당하는 경전으로서 분량으로 보면 비교적 단출하지만 그 구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도출되었다.

가령 수나라 때 達摩笈多의 번역본에 의하면 무착은 경문의 전체를 7종의 義句로 파악하였다. 7종의 義句는 곧 ① 種性不斷, ② 發起行相, ③ 行所住處, ④ 對治, ⑤ 不失, ⑥ 地, ⑦ 立名이다. 이 가운데 앞의 여섯 가지 의구는 보살이 이루어가는 구경의 목적을 현시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 법문의 성립을 현시한 것이다.

무착은 ③의 行所住處의 의구를 중심으로 발심한 보살이 어떻게 住해야 하는가를 물은 것으로 18종류로 세분하였다. 무착은 다시 18종의 주처를 攝住處, 波羅蜜淨住處, 欲住處, 離障礙住處, 淨心住處, 究竟住處, 廣大住處와 甚深住處의 8종주처로 요약하였다.[11] 이것으로 보아 무착은 경문

---

9) 1926 초판 4월 29일(1935 재판, 1937 제3판)『용성대종사전집』제5권 pp.13-113.

10) 여기에서는 제일본과 제이본의 해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용성이 현토한 경문의 원문본에 해당하는 제일본에 의거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한편 용성이 여기에서 텍스트로 삼은『금강경』은 척사판대장경본에 해당한다.『금강경』에 대한 기타 번역본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1926년 초판(1935 재판, 1937 제3판)된『詳譯科解金剛經』의 경우 필자가 원문에 가한 교감의 대목은 16군데에 이른다.

의 전체를 應云何住 하나를 중심으로 전체를 해석하였다.

또한 보리유지가 번역한 천친의 『금강반야경론』 3권본에서는 경문의 전체적인 문답으로 수보리의 네 가지 질문이 등장한다. 첫째는 어떻게 발보리심을 해야 하는가.[云何發心] 둘째는 어떻게 본래의 청정심을 유지해야 하는가.[應云何住] 셋째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云何修行] 넷째는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는가.[云何降伏心] 천친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27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그 의문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경문을 분과하고 있다. 이것이 천친의 27斷疑 분과이다.[12]

또한 천친의 제자 金剛仙은 『금강선론』을 통해서 천친의 『금강반야경론』에 근거하면서 독자적으로 ① 序分, ② 善護念分, ③ 住分, ④ 如實修行分, ⑤ 如來非有爲相分, ⑥ 我空法空分, ⑦ 具足功德挍量分, ⑧ 一切衆生有眞如佛性分, ⑨ 利益分, ⑩ 斷疑分, ⑪ 不住道分, ⑫ 流通分의 12분과로 설정하여 주해를 가하였다.[13]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나라 시대에 소명태자는 나집본의 경문을 따라 32분과로 갈래를 지었고, 함허득통은 『금강경오가해』에서 여러 선인들의 견해를 열거하고 배열한 것과는 별도로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을 통해서 경문의 분과를 형식상으로는 10문으로 나누고 내용적으로는 상근기와 중근기와 하근기에 따른 것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금강경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14]

또한 길장은 三段二周說을 채택하였다. 길장이 제시한 3단설은 기존의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형식을 계승하면서 약간 수정을 가하였다. 서분의 경우는 通序와 別序, 證信序와 發起序, 遺敎序와 現前序, 經前序와 經後序

---

11) 無著, 『金剛般若論』 卷上, (大正藏25, pp.757上-758下) 참조.

12) 김호귀, 「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4종심 考」, (『한국불교학』 제30집. 한국불교학회. 2001. 12)

13) 김호귀, 「『금강선론』의 분과와 그 사상적 특징」, (『불교학연구』 제19호. 2008. 4)

14) 김호귀, 「함허의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의 분과 고찰」, (『한국선학』 제12호 2005. 12)

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정종분의 경우는 一周廣說과 二周略說로 구분하였다. 유통분의 경우는 佛이 說經을 마치는 대목과 時衆이 歡喜奉行하는 대목의 둘로 구분하였다.[15]

또한 규기는 『금강반야경찬술』에서 경문을 三分하였는데, 제일분은 「如是我聞」부터 「敷座而坐」까지를 由致分으로 삼고, 제이분은 「時長老須菩提卽從坐起」 이하 「應作如是觀」까지를 發請廣說分으로 삼았으며, 제삼분은 「佛說是經已」 이하 「信受奉行」까지를 喜悟修行分으로 삼았다.[16]

또한 지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에서 菩提流支本에 의하여 ① 明敎興所由, ② 明藏攝分齊, ③ 明所詮宗趣及詮敎體, ④ 釋經題目, ⑤ 分文解釋 등 五門分別을 짓고, ⑤의 分文解釋에 대하여 경문을 序・正宗・流通의 셋으로 나누었다.[17]

이처럼 『금강경』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구성과 달리 여기에서 용성은 『금강경』에 대하여 나름대로 경문의 분과를 시도하였다. 곧 용성은 경문에 대하여 54단락(1.-54.)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가하고, 다시 용성 자신이 41회(①-㊶)에 걸쳐서 해당하는 경문의 단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용성의 분과는 먼저 경문 전체를 前篇 1.-35. ⑳ 및 後篇 36.-54. ㉑의 둘로 나눈다. 그리고 전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경전의 처음부터 이 대목에 이르기까지는 전체적으로 大心衆生으로

---

15) 나아가서 2주설법의 분과에 대해서는 곧 前周에서는 實慧를 설명하고, 後周에서는 善巧方便(善權)을 판별하고 있다. 더불어 4周因果로 기존의 12분설을 비판하였다. 김호귀, 「길장의 금강경분과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제42집. 불교문화연구원. 2004)

16) 김호귀, 「규기 『금강경찬술』의 분과의 내용과 특징」, (『한국선학』 제21호. 2008. 12) 규기는 천친의 『논』에 의하여 분과하였다. 窺基. 『金剛般若經贊述』 卷上, (大正藏33, p.126上)

17) 김호귀, 「지엄의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의 분과 및 그 사상적 내용」, (『불교학보』 제51집. 2009. 2) 智儼, 『金剛般若波羅蜜經略疏』 (大正藏33, p.239上)

서 초발심한 보살의 아집과 법집을 타파한 것이다. 이것은 五蘊身心에 집착하여 아집을 삼고, 자신이 짓는 緣塵과 六度萬行으로써 보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법집을 삼는데, 대각께서는 이것들을 모두 상에 집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적으로 麤惑을 타파하신 것이다.[18]

한편 후편에 대해서는 "미세한 二執의 타파에 대하여 통체적으로 논하다."[19]고 평가하였다. 용성이 붙은 [詳譯科解]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전체 경문에 대한 분과는 다음과 같이 퍽 구체적이다.

순서	분과	순서	분과
	釋題	⑱	覺示無住之益
1	覺住世說法儀式	31	疑無住心이 雖是般若나 己智로 如何契合覺智
2	覺之住世에 平常示人	⑲	覺答平等
3	幸有須菩提點破	32	覺示重讚般若
4	正是親見如來淳淳之慈	33	覺示般若法身常住
5	問安心方法	34	覺示般若離障出纏之益
6	反取善護念付囑之意하야 答不必別求	35	覺讚般若一念頓超
7	但諸正士未領其旨故更欲樂聞	⑳	通論過去節全編大義 單<이상 上半>
8	標安心方法(義在下文)	㉑	此下는 通論下篇破微細二執 單[20]
9	釋安心觀法	36	覺이 徵破微細我法二執
10	須菩提聞衆生空하고 疑雲이 潑潑	㉒	이왕 지나간 경문을 거듭 해석한다
①	覺破着相之疑	㉓	이후에 등장하는 후반부의 대의를 미리 분석하다
11	疑云若不住相이면 何以有福고	37	聞法無可得하고 疑所悟般若非法
②	覺示離相妙行	㉔	覺示菩提無得하사 以破執覺之疑
12	結示安心法	38	疑無因無果
13	聞衆生空三輪體寂하고 疑因虛設	㉕	覺現法身이 不屬因果

18)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73-74.

19)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74.

③	覺示無相妙行	39	疑無我면何以度生
14	疑無相因으로 契無相果	㉖	覺示法身無我하사 例破正士微細二執
④	覺示覺之知見	40	不見衆生可度하고 無土可淨인댄 要五眼作麽
15	聞覺非色相이오 法不可取하고 疑覺成菩提	㉗	覺示心覺及衆生三無差別
⑤	覺이 雙遣覺法知見	41	疑生土皆空인대 必 不修福德
16	解無覺法이나 疑福殊勝	㉘	覺示無相之福
⑥	覺示無相之福爲最	42	聞生土皆空하고 疑如來具足色相
17	聞覺法俱無可得하고 疑修因結果	㉙	覺이 破報身色相之見하고 以現法報冥一
⑦	覺示無住眞宗	43	疑覺身無相인데 誰當說
18	聞覺果無住하고 疑如來受記	㉚	覺이 破報身佛說法之疑
⑧	覺示究竟無得之旨	44	雖悟法身無說無示나 末世衆生이 能信否
19	聞菩提覺果無所得하고 疑莊嚴覺土	㉛	覺이 破衆生見
⑨	覺示安心法	45	疑法身이 無相인댄 何言修一切善法
20	聞不莊嚴覺土하고 疑千仗大化身이 居何所耶	㉜	覺示破覺法見
⑩	覺示法身眞相	46	疑善法이 旣非면 何法이 爲勝
21	覺示以喩現法殊勝	㉝	覺示離相之功이 最勝
22	須菩提群疑가 頓破하고 言忘理極할새 遂請經名	47	疑旣無衆生이면 何言度生
⑪	覺示般若實際	㉞	覺有人我하고 現法身眞我
23	疑覺無相인댄 誰當說法	48	義法報가 旣空이면 三十二相이 豈非覺耶
⑫	覺示法身無形인댄 法亦無說	㉟	覺示應化非眞이오 法身非相
24	疑法身非相인댄 卽墮斷滅	49	聞說法身無相하고 疑法身斷滅
⑬	覺이 向百尺竿頭하야 更進一步	㊱	覺이 破斷滅知見
25	須菩提疑化身爲眞覺	50	疑無我無福인댄 威儀動靜이 非如來耶
⑭	覺示法化冥一	㊲	覺示會歸法身眞際
26	須菩提默默深契하야 無理可伸이며 無言可呈	㊳	覺이 以微塵世界로 破一異之見
⑮	覺示現法空勝益	51	疑法身이 一切皆非인댄 又何以說四相見

27	須菩提領悟하고 陳情發露	㊴	覺이 破執離相之見
28	須菩提疑外施可忘이나 身命難捨이니 如何能捨	52	疑法身은 不會說法이오 化身所說은 不達法身
⑯	覺示破五蘊實法	㊵	覺示化身所說이 卽實法이니 三身이 一體故
29	疑能所가 皆空인댄 因果가 那有	53	疑法身은 寂滅이라 如何能說
⑰	覺結示諦信	㊶	覺示般若眞空妙觀
30	疑不住相布施生心이면 如何合得般若	54	全編總結

여기 용성의 54분과에서 수보리가 제시한 의심은 경전의 제목에 대한 의심까지 포함하여 단락별로 5. 7.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8. 29. 30. 31.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등 37가지 의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의심은 서분 및 유통분을 제외하고 정종분의 대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과 답변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용성은 경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 이 경전의 大義는 아집과 법집을 타파하고 相이 공함을 드러낸다. 또한 이 경전의 大要는 無相으로 종지를 삼고, 無住로 본체를 삼으며, 妙行으로 작용을 삼는다. 또한 이 경전의 大槪는 수보리는 내심으로 잠잠히 의심하고 세존께서는 언설로 답변하신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타심통으로 일체중생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보기 때문이다.[21]

대의는 앞의 『윤관』에서 제시된 것처럼 집착에 대한 아공과 법공의 터득을 드러내보였는데 그에 대하여 전편과 후편의 경문이 형태는 비슷할지라도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곧 『금강경』의 첫머리에 수보리가 '어떻게 청정심에 안주하고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

20) 용성은 이하의 부분을 후편으로 분류하여 해석한다.

21)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14.

는가.'를 질문한 것은 범부 가운데서도 大心衆生으로서 처음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킨 초발심 보살에 해당한다. 그런데 초발심보살의 경우 여러 가지 모든 상에 집착하고 자기의 오온색신에 집착하여 수행을 한다. 이에 그와 같은 수행이 모두 상을 벗어나지 못하여 깨침으로부터 아득히 멀어져 있었기에 수보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낱낱이 의심하고 대각께서 낱낱이 타파하여 마음에 집착할 것이 없도록 해준 연후에야 비로소 초발심보살은 실제로 반야에 계합하고 대중의 의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위의 전반부에서 제시된 경문의 뜻이었는데 그 설법을 드러낸 것이 매끄럽지 못하였다.

그래서 경전의 후편에서 어떻게 청정심에 안주하고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는가를 다시 질문하였는데, 그것은 곧 증득한 지혜를 잊지 못하고 또한 습기를 잊지 못한 까닭에 진여 가운데에 안주하기를 추구한 것이고, 또한 빨리 보리를 구하려는 것도 보리에 대한 집착이라는 말에 마음이 불안하여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물은 것은 깨침을 추구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중생소견과 각 소견을 잊지 못하여 平等一如함을 통달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이에 수보리는 전반부와 똑같은 형식으로 질문하였다. 그러나 질문의 형식은 똑같지만 그 뜻은 천지만큼 현격하다는 이유에 대하여 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미 반야를 깨친 보살은 증득한 그 지혜로써 아상을 삼고, 증득해야 할 진여로써 인상을 삼으며, 증득하고 깨친 것으로써 중생상을 삼고, 증득하고 깨친 것을 잊지 못하여 그것이 지속되는 것으로써 수자상을 삼는다. 이것은 대각께서 지극히 미세한 사상을 타파하신 것인데, 질문과 답변이 전편과 같은 듯하지만 그 뜻은 천지차이임을 알아야 한다.[22]

이것은 경문의 내용이 단순히 질문의 형식 및 분량에 의거하여 판단해

22)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74.

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서, 수보리에 의하여 제시된 37가지 의심은 질문의 형식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내용에 따른 각각의 주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신역대장경』

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23]는 경문의 경우 한문은 생략되고 한글번역만 수록되어 있다. 대략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성의 [서문]이 붙어 있다. 그리고 경문의 내용에 대하여 각 대목마다 분과 및 자세한 해설이 강의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용성은 경문을 상·하권으로 분류하고 32분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32분과의 명칭에 대하여 한글번역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32분과를 기준으로 보면 오직 서분에 대해서만 내용에 따라서 다시 둘로 세분하였다.[24]

전체적으로 32분과에 의거하면서 해설에 있어서는 각 단락은 나누어서 총 상권(제1분-제14분)의 73단락, 하권(제15분-제32분)의 40단락 등 총 113단락으로 나누고, 112군데 걸쳐서 해설을 붙였다.[25] 각 단락마다 붙인 해설의 경우에 축자적인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경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고 있다. 상권(86쪽 분량)과 하권(32쪽 분량)으로 분류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순히 이분한 것으로 보인다.

[서문]에서는 『금강경』의 대의에 대하여 "일체중생의 本源覺性에 청정한 금강의 無爲佛心을 드러내어 見性成佛하도록 해준다. 그 본체는 집착

---

23) 1936년 9월 30일 삼장역회 발행본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295-408.

24) 용성은 서분에 해당하는 1. 법회인유분에 대해서만 1) 부처님께서는 설하지만 아난은 설하지 못함을 증거로 삼다, 2) 金剛大定에 들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이시다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25) 32분과 가운데 8. 의법출생분 대목에서 거듭 두 차례의 해설을 가하였고, 27. 무단무멸분 및 28. 불수불탐분의 두 대목을 묶어서 한 차례의 해설을 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113단락, 113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없어 허공과 같고, 그 지혜는 해와 달보다 밝다. 불타께서는 일체중생이 자기의 청정심에 어두워서 무량겁 동안 생사에 윤회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겨서 수보리와 더불어 묻고 대답하여 낱낱이 그 의심을 모두 풀어주셨다."[26]고 말한다.

또한 수보리의 질문을 내용에 의거하여 7가지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겨냥한 것이라 말하여 객체에 해당하는 四相의 妄相이 공한 까닭에 주체에 해당하는 四見의 妄見이 없음을 설명한다. 이로써 발심한 보살은 일체법에 대하여 如是知하고 如是見하며 如是信解하고 법상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바야흐로 반야의 진공묘지를 터득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문의 본문에 대하여 분류한 32분과의 기존 명칭에 대하여 비록 축자적인 번역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한글풀이를 한 점이 돋보인다.[27]

명칭	해석	명칭	해석
1. 法會因由分	청정한 대중이 법자리에 모인 이유	17. 究竟無我分	구경에 아가 없는 분
2. 善現起請分	수보리가 일어나 법을 청하는 분	18. 一體同觀分	일체로 보는 분
3. 大乘正宗分	큰 법 바른 종	19. 法界通化分	법계 통화하는 분
4. 妙行無住分	묘행이 주함이 있는 분	20. 離色離相分	색을 여이고 생을 여인 분
5. 如理實見分	이치와 같이 실다히 보는 분	21. 非說所說分	설하되 설할 밥 없는 분
6. 淨信希有分	정신하는 것이 희유한 분	22. 無法可得分	법을 가히 얻을 것 없는 분
7. 無得無說分	얻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분	23. 淨心行善分	정심행선분
8. 依法出生	법을 의지하야 출생하는 분	24. 福智無	복지가 비할대 없는 분

26)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295.

27) 이처럼 32분과에 대한 한글번역은 용성 자신의 번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分		非分	
9. 一相無相分	상과 무상분	25. 化無所化分	화하야도 화하는 바 없는 분
10. 莊嚴淨土分	정토를 장엄하는 분	26. 法身非相分	법신이 상 아닌 분
11. 無爲福勝分	하염없는 복승한 분	27. 無斷無滅分	끈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는 분
12. 尊重正敎分	정교를 존중하는 분	28. 不受不貪分	받지 않고 탐하지 않는 분
13. 如法受持分	법다히 수지하는 분	29. 威儀寂靜分	위의 적정한 분
14. 離相寂滅分	상을 여이여 적멸한 분	30. 一合理相分	일합상분
15. 持經功德分	경을 가진 분	31. 知見不生分	지견이 나지 아니한 분
16. 能淨業障分	능히 업장을 청정케 한 분	32. 應化非眞分	응화신이 참이 아닌 분

4)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28]은 위에서 살펴본 번역본들과는 형식과 구성 등 몇 가지 점에서 차별이 보인다.

(1) 우선 전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용복사 간행본을 텍스트로 삼고 있는데, 한문으로 된 경문을 162단락으로 나누고 그것을 우리말 순서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가령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則非菩薩"의 대목의 경우 "何를 以한 故오 須菩提야 만일 菩薩이 我相과 人相과 衆生相과 壽者相이 有하면 곳 菩薩이 아니니라."와 같다.

28) 1922년 출간.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13-500. 이 경우는 龍腹寺 간행본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誼』에 해당한다.

둘째, 五家解 가운데 冶父의 설을 중심으로 110구절 가운데 88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된 구절 가운데서도 그대로가 아니라 간혹 약간 변형시킨 부분이 엿보인다.

셋째, 冶父가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함허의 『說誼』 대목을 인용하여 93회에 걸쳐서 주석을 가하였다.[29]

넷째, 또한 冶父가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간혹 용성 자신의 짤막한 주석을 13회에 걸쳐서 붙이고, 경문에 대해서도 드물기는 하지만 용성자신의 짤막한 주석을 3회에 걸쳐서 붙이고 있다.

다섯째, 경전의 題名을 포함하여 경문의 단락 가운데 용성 자신이 33회에 걸쳐서 그 단락에 대한 대의를 설명하여 경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 다음으로 전체적인 구성은 첫째 摠判大義, 둘째 海東沙門涵虛序, 셋째, 경문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의 경문에 대해서는 소명태자의 32분과 구조에 근거하여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상권의 범위를 1. 법회인유분부터 14. 이상적멸분까지로 분류하고 이하 15. 지경공덕분부터 32. 응화비진분까지를 하권으로 분류하였다. 용성은 龍腹寺 간행본으로서 현재 『한국불교전서』 제7책 수록본[30]인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에 해당한다.

용성은 첫째의 摠判大義에 대해서 1) 함허당이 해석한 뜻을 간략하게 인용하다. 2) 불교는 마음을 가르치다. 3) 불법의 가르침에는 차례가 있다. 4) 경전의 핵심[綸貫]을 말하다 등 네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4) [경전의 핵심을 말하다]는 대목에서는 용성은 다음과 같이 8가지의 주제를 통하여 수보리의 의심에 대하여 여래가 각각 답변해

---

29) 경문에다 붙인 험허의 『說誼』 1회를 포함하면 총 94회에 걸친 涵虛의 『說誼』의 주석을 붙인 셈이다.

30) 『한국불교전서』 제7책, pp.10-115.

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 ① 수보리는 오온의 身·心과 六塵의 상에 집착하여 보시하여 부처님의 복덕을 추구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無住로써 타파해주신다. ② 수보리가 보리상에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無所得으로 타파해주신다. ③ 수보리가 보시에 집착하여 불국토를 장엄하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불국토는 장엄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써 타파해주신다. ④ 수보리가 복덕에 집착하여 여래의 과보로써 삼십이상과 팔십종호를 얻고자 하자 부처님께서는 구족색신이 아니라는 것으로써 타파해주신다. ⑤ 수보리가 여래에게는 삼신상이 있는 것으로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응화신은 진신이 아니고 보신은 형상을 벗어나 있다고 함으로써 타파해주신다. ⑥ 법신상이 있는 것으로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법신은 진신상이 아니다[非相]는 것으로써 타파해주신다. ⑦ 법신에 實我가 있는 것으로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無我로써 타파해주신다. ⑧ 수보리가 여래에게 삼신상이 있는 것으로 집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삼신상은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으로써 타파해주신다.[31]

또한 둘째의 [海東沙門涵虛 序]에서는 함허당이 1415년 6월에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에 붙인 서문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32]

또한 셋째의 경문에 대해서는 32분과에 근거하고 있지만, 다시 구체적으로는 143가지 주제어로 세분하여 각각의 단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33]

32분	용성의 세분	미세분	극미세분	32분	세분		
1.법회인유	證信序			15.지경공	餘乘不測		

31)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20-421.

32)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422-424 ; (『한국불교전서』 제7책 pp.10中-14上)

33) 137가지 주제어로 세분하고, 여기에 다시 미세분 6회를 합하여 143회의 주제어를 붙여두고 있다.

분	先現戒相爲物作則			덕분	依大心說		
	金剛大定에 入함을 標示				具德能傳		
2.선현기청분	住降方法을 問				樂小不堪		
	如來讚許				所在如塔		
	善現伸聞 善現은 須菩提			16.능정업장분	轉罪爲佛		
3.대승정종분	摠을 擧하고 別을 標하야써 前問을 牒함				多佛攻中全具德		
	廣大心				持經福多		
	第一心				見聞則疑		
	常心				總結幽邃		
	不顚倒心			17.구경무아분	問		
4.묘행무주분	摠標				若名菩薩必無我		
	別釋				若有我相非菩薩		
	摠結				能所		
	現益				擧疑處		
	結勵不住				斷疑		
5.여리실견분	疑因을 擧하야 問함				反覆釋		
	疑를 遮防하야 酬함				明佛卽菩提故無得		
	體가 有爲와 異함을 釋함				遣執遮疑		
	佛身無相을 印함				釋義斷疑		
6.정신희유분	約無以呈疑				顯眞佛眞法體		
	訶疑以顯信				明失念		
	明歷事善友積集信因				引前說		
	明攝受福德門				釋所以		
	正明已斷麤執				釋成菩薩		
	末除細執			18.일체동관분	肉眼		
	中道玄門示				天眼		
7.무득무설분	擧疑因以問				慧眼		
	順實理以酬				法眼		

	釋無定法				佛眼		
	釋無取之所以				約一箇恒河以沙數		
8.의법출생분	擧劣福以問				約一河中沙以數河		
	釋福多以酬				約爾所界中所有主		
	判經福勝				會妄歸眞以釋悉知		
	釋超過所以	(1)正釋			推破妄染以釋非心		
		(2) 轉釋		19.법계통화분	問福答福		
9.일상무상분	入流果				順釋		
	一來果			20.이색이상분	由無身故現身		
	不來果				由無相故現相		
	無學果	(1)擧所得以問		21.비설소설분	遮錯解		
		(2)明無取以答	① 明 佛先印 ② 彰 已不取		釋所以		
					示正見		
	却釋佛意			22.무법가설분	以無法爲正覺		
10.장엄정토분	斷釋燃燈取說疑			23.정심행선분	以平等爲正覺		
	擧取相莊嚴問				以正助修爲正覺		
	依淨心莊嚴勸			24.복지무비분			
	問答斷疑			25.화무소화분	遮其錯解		
11.무의복승분	約多河以辨沙				本無衆生可度		
	約多沙以彰福				反釋所以		
	約多福以顯勝處				展轉拂跡		
12.존중정교분	明處可敬			26.법신비상분	問以相表佛		
	顯人獲益				答因苗識根		
13.여법수지분	約義辨名勝				難凡聖不分		
	佛無異說勝				悟佛非相見		
	施福劣塵勝				印見聞不及		
	感果離相勝			27.무단무	遮毁相之念		

				멸분			
	較量勝			28.불수불탐분	分得忍故不失		
14.이상적멸분	歎未聞深法勝				正明不失		
	正明具德勝				澂釋福德所以		
	佛跡			29.위의적정분	庠錯解		
	摠標信解				示正見		
	別顯三空			30.이합리상분	細末方便破麤色		
	如來印定				不念方便破微塵		
	聞時不動希有勝				不念方便破世界		
	大忍淸淨第一勝				俱約塵界破和合		
	明忍體				佛印無中妄執有		
	正明苦忍			31.지견불생분	庠錯解		
	無住對治				遣言執		
	斷疑				除法執分別		
	離執				顯本寂		
15.지경공덕분	捨命福			32.응화비진분			
	信經福						

3. 용성 번역의 내용적인 특징

용성은『금강경』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서 4종으로 번역을 시도하였고, 더불어『윤관』을 통하여 전체적인 대의를 설명하였다.[34] 구성 및 형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까닭에 여기에서는 이들 용성번역

34) 제1회 번역은 1922년『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鮮·漢文幷>이었고, 제2회 번역은 1926년『詳譯科解金剛經』(2종 출간)이었으며, 제3회는 1936년『신역대장경』이었다. 전체적인 대의를 설명한『윤관』은 제1회 번역 이후 1923년에 출간되었다.

에 드러난 내용의 특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용성이 번역한 『금강경』의 경문에 대한 내용은 우선 지극히 祖師禪的인 해석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35] '금강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제명에 대해서는 '無爲佛心을 直指한 大知慧로써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금강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제명은 용성 번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경우로서 금강을 마하반야바라밀과 동치시켜서 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용성에게 있어서 금강은 금강석에 대한 비유이면서 더불어 반야묘지의 법을 상징한다.

경문의 경우 우선 '一時'에 대해서는 여여한 불변의 일시이고 스승과 제자의 깨침이 합치되는 일시이며 멀고 가까움에 걸림이 없는 일시라고 해석한다.[36] 이것은 정법안장의 속성이 늘상 여여하다는 本體를 가리키고, 정법안장에 대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이심전심의 屬性을 가리키며, 정법안장의 공능이 일체중생에게 보편적인 진리로 드러나 있다는 妙用을 가리킨다.

또한 '希有世尊'이라는 수보리의 찬탄에 대해서 용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희유하다는 말씀에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교화에 나서서 모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신 것이 희유하다는 것이다. 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지혜가 본래구족되어 있어서 그것이 청천백일과 같이 밝지만 부처님께서 조용하게 그것을 누설한 것이 마치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라고 한 것과 같으니 그것이야말로 수치를 모르는 부처님이시기에 참으로 희유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을 곧바로 가리킨 것으로서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비쳐줄 수도

---

35) 1922년에 출간된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鮮·漢文幷>의 경우 처음부터 冶父의 게송과 해설 및 함허의 『說誼』에 근거하여 번역 및 해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936년에 번역된 『신역대장경』 <純鮮文>의 경우는 경문 전체에 걸쳐서 여러 조사들의 법어를 인용하면서 해설을 가하고 있다.

36)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425.

> 없고 단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모양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모양도 어떻게 표현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세존께서 가부좌를 하시고 단정하게 앉아계셨을 때에 최초의 한마디[最初句]를 누설하였는데 수보리가 아니면 그 누가 부처님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인가. 그러고보면 수보리도 또한 참으로 희유하다.[37]

이와 유사한 해석은 일찍이 함허의 경우에도 상근기는 발심만으로 작용을 삼아 침묵으로 개시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38] 함허는 경문의 초두에서 부처님께서 아직 설법을 하기도 전의 침묵의 상황에서 수보리가 먼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제보살을 선호념하시고 제보살을 선부촉하십니다.' 라고 찬탄한 것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함허의 경우는 수보리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해석하였지만, 용성의 경우에는 일체중생에게 지혜가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다는 중생의 입장과 석가모니가 교화하는 입장 등 두 측면에 두루 적용하여 言詮不及이기 때문에 다만 희유하다는 말로써 찬탄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본문 가운데서 3. 대승정종분의 대목에 대해서는 廣大心, 第一心, 常心, 不顚倒心이라는 천친의 四種心에 근거하여 깨친 이후의 조사들이 펼치는 4종의 보살행으로 단락을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4. 묘행무주분의 "我가 없은 즉 人이 없고 아와 인의 둘을 모두 잊은 즉 마음이 자연히 적멸하고 자연히 안락하고 자연히 虛靈하여 취하고 버리는 분별심이 없는데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39]는 내용, 5. 여리실견분의 "이 모든 상이 다 허망한 것이므로 아상이 공하고, 법상이 공하고, 아상과 법상이 함께 공하고, 함께 공하다는 것도 또한 공한 것이 곧 진정한 여래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소승의 법상에 집착함을 배척하고 대승의 초입문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그러나 百尺竿頭에 앉아 있는 사람은 참이 되지 못하는

---

37)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p.314-315,

38) 涵虛, 『金剛般若波羅蜜經綸貫』, (『韓國佛敎全書』 제7권, pp.118下-119上)

39)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327.

까닭에 법안선사는 '만약 모든 형상을 진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여래를 보지 못한다.'[40]고 말했다."[41]는 내용 등, 기타 용성이 가한 선적인 해설의 내용은 대단히 풍부하다.

또한 1922년에 출간된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鮮·漢文幷>의 경우는 매 경문마다 冶父의 게송 및 해설을 곁들이고, 함허의 『說誼』 및 용성 자신의 안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짤막한 주해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의 경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와 해설을 가하고 있다.

> 若以色見我커나 以音聲求我하면 是人行邪道라 不能見如來니라
> <용성해설>
>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보리가 마음속으로 의심하였다. '법신에 아(我)가 없다면 보신도 또한 상을 통해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래에게 나타나있는 삼십이상이 어찌 여래가 아니겠는가.' 이에 세존께서는 전륜성왕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의심을 타파해주셨다.
> <야보설> 설령 소리와 색을 통해서 여래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또한 여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자, 말해보라. 어찌해야 볼 수가 있는가. (함허설의 :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은 세간의 본래도리[本常理]인데 쌓인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내린다. 그대가 지금 부처님[黃面老]을 보려고 한다면 마야부인의 뱃속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噫!(용성주해 : 삼십 년 이후에는 어떤 뜻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42]

이처럼 용성 번역본의 해석 내지 해설의 내용을 때로는 그 형식과 결부시켜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용성의 선적인 이해가 잘 드러

---

40) 『宏智廣錄』 卷3, p.28下. "擧經云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法眼云 若見諸相非相 卽不見如來" 참조.

41)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330.

42)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 p.492.

나 있다. 곧 '삼십 년 이후에는 어떤 뜻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는 것은 현생을 마치고 환생하여 본래자리로 도래한다는 것으로 다음 생을 가리킨다. 삼십 년은 수행하는 기간으로서 한평생을 상징하는 말이다. 흔히 '백년 이후' 또는 '다시 돌아올 때'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마야부인의 뱃속'은 석가모니부처님을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정한 불성의 자리이다. 때문에 색과 소리를 초월해서 진정한 부처의 모습을 파악하려면 자신이 직접 마야부인의 如來藏으로 들어가서 청정한 불성을 보아야 한다. 冶父의 본래 해설에는 '이 말이 삼십 년 이후에 땅에 떨어지면 쇳소리가 날 것이다 此語三十年後 擲地金聲在'라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에 대하여 용성은 나름대로 변형하여 '삼십 년 이후에는 어떤 뜻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로 해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용성은 『금강경』에 대하여 1922년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을 비롯하여 1926년 『詳譯科解金剛經』 및 『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 그리고 1936년 『신역대장경』 등 총 4회에 걸쳐 번역하였다. 또한 1923년에는 『금강경』의 전체적인 대의에 대한 용성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윤관』을 저술하였다.

이들 4종의 번역본 가운데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蜜經』은 鮮漢文 혼용체이면서, 冶父의 주석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다시 함허의 『說誼』 및 용성 자신의 주해를 가하였다. 『詳譯科解金剛經』의 경우는 경문의 분과에 대한 용성의 견해가 가장 잘 드러난 번역본으로서 54분과로 세분하고, 용성 자신이 41회에 걸쳐서 경문의 단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가하였다. 『신역대장경』의 경우는 소명태자의 32분과에 의거하고, 총 상권(제1분-제14분)의 73단락 및 하권(제15분-제32분)의 40단락 등 총 113단락으로 나누고, 112군데 걸쳐서 해설을 붙였다. 또한 각 단락마다 붙인 해설의 경우에 축자적인 것을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경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고 있다.

한편 『윤관』의 경우는 경문의 대의를 총괄하여 판별한 것이었다. 곧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27가지 의심과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10가지 의심 등 모두 37이다. 의심한 질문의 형식에 따른 개별적인 27가지 의심의 경우는 상반 부분(1.-12.)의 경우 麤의 四相을 극복한 아공(1.-8.)에 대한 의심의 타파와 법공(9.-12.)에 대한 의심의 타파로 간주하고, 하반 부분(13.-27.)의 경우 細의 四見을 극복한 아집과 법집에 대한 의심의 타파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의심한 질문의 내용에 따른 총체적인 10가지 의심에 대한 그 해결답변은 곧 무집착, 무소득, 불국토가 공함, 구족색신상, 응신·보신은 비진·비분별, 법신은 분별상이 아님, 일체법은 무아, 삼신은 非一·非異, 삼신은 一體, 여섯 가지의 비유 등이었다.

주제어 : 『신역대장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상역과해금강경』, 『금강마가반야바라밀경』, 『신역대장경』, 『설의』, 『윤관』, 야보, 32분과, 113단락

Abstract

Matters about translation of Vajracchedikā prajňāpāramitā-sūtra by Grand Master Baek Yong Sung

Ho-Gui Kim

Research Prof., Humanities Korea Project Academy of Buddhist Srudies, Dongguk University

So to speak, *Sinyuk-DaejangGumgangMahabanyabaramilgyung* in 1922, *SnngyukGwahaeGumganggyung* & *GumgangMahabanyabaramilgyung* in 1926, and *SinyukDaejanggyung* in 1936. Moreover, YongSung wrote a summing up of *Vajracchedikā prajňāpāramitā-sūtra,* that is, *Gumgangbanyabaramilgyung-Yungwan* in 1923.

Sinyuk-DaejangGumgangMahabanyabaramilgyung use Hangul at the same time with Chinese characters in the formed of book. But the contents of book was made of the commentary by Yefu-Daochuan(冶父道川) of Song dynasty, the commentary by Hamhu-Duktong(涵虛得通) of Josun dynasty and the commentary by Younssung himself.

SnngyukGwahaeGumganggyung was composed of fifty four sections about *Vajracchedikā prajňāpāramitā-sūtra*, and Youngsung dilated upon that subject through forty one sections.

SinyukDaejanggyung on the basis of thirty two sections by Zaoming, namely, the prince of Liang. But Yongsung itemize the thirty two sections into one hundred thirteen, and among them one hundred

thirteen sections had notes by Yongsung himself.

Gumgangbanyabaramilgyung-Yungwan written in question and answer form. twenty seven theme. But The contents of *Gumgangbanyabaramilgyung-Yungwan* was the core of *Vajracchedikā prajňāpāramitā-sūtra.*

Key words :

Vajracchedikā prajňāpāramitā sūtra,
Sinyuk DaejangGumgangMahabanyabaramilgyung,
SnngyukGwahaeGumganggyung,
GumgangMahabanyabaramilgyung,
SinyukDaejanggyung,
Gumgangbanyabaramilgyung Yungwan,
Yefu-Daochuan,
Hamhu-Duktong,
fifty four sections,
forty one sections,
thirty two sections,

* 참고문헌

『龍城大宗師全集』 제5권
天親『金剛般若經論』, (大正藏25)
無著,『金剛般若論』 卷上, (大正藏25, pp.757上-758下)
智儼,『金剛般若波羅蜜經略疏』 (大正藏33)
窺基,『金剛般若經贊述』, (大正藏33)
『宏智廣錄』, (大正藏48)
涵虛,『金剛般若波羅蜜經綸貫』, (『韓國佛敎全書』 제7권)
涵虛,『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說誼』, (『韓國佛敎全書』 제7권)
김호귀,「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4종심 考」, (『한국불교학』 제30집. 2001)
_____,「『금강선론』의 분과와 그 사상적 특징」, (『불교학연구』 제19호. 2008)
_____,「함허의 금강반야바라밀경윤관의 분과 고찰」, (『한국선학』 제12호 2005)
_____,「길장의 금강경분과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제42집. 2004)
_____,「규기『금강경찬술』의 분과의 내용과 특징」, (『한국선학』 제21호. 2008)
_____,「지엄의『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의 분과 및 그 사상적 내용」, (『불교학보』 제51집. 2009)
_____,「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 Ⅰ」, (『불교원전연구』 제3집. 2002. 6. 불교문화연구원)
_____,「천친 금강반야바라밀경론의 4종어 考」, (『불교학보』 제38집 2001)

논문투고일: 2012.10.4. 심사완료일: 2012.11.25. 게재확정일: 2011.12.24.